

III 행정구역의 변화

행정구역은 지방 행정을 맡아보는 공간 단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역적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삶의 공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여러 차례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단위를 일치시켰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광역 행정 체계는 도를 기반으로 한 조선 시대의 행정구역 체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

1945년에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은 특별시 1곳, 도 15곳, 부 23곳, 군 218곳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듬해 제주도가 전라남도에서 분리되었고, 1948년에 부가 시로 일괄 개칭되었다. 1962년 정부는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하게 하려고 대폭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하였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의 금산군을 충청남도로 옮겼고, 강원도의 울진군을 경상북도로 이관하였다.

1960년대 이후의 행정구역은 주로 시 지역의 인구 증가와 교외화 등으로 도시가 확장하면서 개편되었다. 인구가 증가한 소, 도, 읍이 시로 승격하기도 하였으며, 인구가 증가한 대도시는 도의 관할 아래에서 직할시로 승격함으로써 직접 중앙 정부의 관리를 받게 되었다. 1960년대 부산이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1960년대 말에는 특별시 1곳(서울특별시), 직할시 1곳(부산직할시), 도 9곳(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시 30곳, 군 140곳의 행정구역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1980년대에는 인천, 대구, 광주, 대전 등의 지방 대도시들이 직할시로 승격하였다.

1962년 이후 대폭적인 지방 행정구역 개편은 1995년에 이루어졌다. 이때의 지방 행정구역 개편은 도시와 도시의 배후지인 군 지역을 통합하여, 성장하는 도시와 쇠퇴하는 농촌 배후 지역의 균형 발전, 도시 개발을 위한 토지의 확보, 행정의 효율성 제고,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였다. 1995년에 대폭적인 지방 행정구역 조정으로, 중심 도시인 시와 배후지인 군이 통합되었다. 또한 직할시는 인접 지역을 통합하여 광역시로 개편되었다. 1995년에 40개의 도농 통합시를 설치하였고, 부산직할시, 대구직할시, 인천직할시, 광주직할시, 대전직할시가 광역시로 출범하였으며, 1997년에 울산시가 울산광역시로 승격하였다. 2000년대에는 시군 통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2006년에는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개편되었고, 2012년에는 행정 중심 복합 도시인 세종시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출범하였다.

— 국토 지리 정보원, 『대한민국 국가 지도집 I』

III 팔도강산

조선 시대에는 지금과 달리 우리나라를 8도로 나누었다. 1413년 태종 때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로 구분하였으며, 성종 때 『팔도지리지』라는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다. 제주도는 조선 시대까지 전라도에 포함되어 있다가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면서 자치도로 분리되었다.

북한에는 9개의 도가 있는데, 황해북도, 황해남도, 강원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양강도, 자강도가 있다.

— 고은애 외, 『초등학생을 위한 개념 한국 지리 150』

III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

서울은 수도를 가리키는 우리말이다. 그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곳이 경기도이다. 경기라는 말은 왕도(王都)를 보호하기 위해 외곽에 설정한 지역으로, 당나라 때 왕도 주변 지역을 ‘경현’과 ‘기현’으로 나누어 다스렸던 데에서 유래한 용어이다. ‘경’은 중국에서 천자의 도읍지, ‘기’는 왕성을 중심으로 사방 500리 이내의 땅을 의미했던 것으로, 나중에는 왕도 외곽 지역을 지칭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경기라는 용어는 고려 현종 9년에 개성 주변 지역을 지칭하며 처음 사용하였다. 현재의 경기도는 조선 시대 한성을 중심으로 다시 만들어진 지역으로, 조선 시대 공식 행정 명칭인 조선 8도(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황해, 평안, 함경)가 탄생하면서 지명으로서의 위치를 굳히게 되었다.

경기는 과거 중앙 관리가 직접 관장했으며 개성, 광주, 수원, 강화 등에 군영을 설치해 왕실의 보위를 담당하였다. 이렇다 보니 경기는 서울(한성)과 함께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로 동반 성장하였고, 근대 지리학적으로는 수도권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1967년 수원으로 옮겨진 도청 소재지가 오랫동안 서울에 있었다는 사실은 서울과 경기의 역학 관계를 잘 보여 준다.

행정구역은 대부분 큰 산이나 하천을 경계로 나뉘는 것이 상식적이거나, 경기도는 한강을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나뉘는데도 단일한 행정 단위를 유지하고 있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 북부 중심 도시인 의정부시에서 경기도청의 업무를 일부 담당하기도 한다.

— 권동희, 『한국 지리 이야기』

북한의 행정구역

북한의 행정구역은 평양직할시, 나선특별시, 남포특별시, 개성특별시의 직할시 1곳과 특별시 3곳, 황해북도, 황해남도, 강원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양강도, 자강도의 도 9곳으로 이루어져 있다. - 통일부 국립 통일 교육원

인구

• 인구의 정의

인구란 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의 총수를 말한다. 인구의 또 다른 정의로는 어떤 특정한 시간에 일정 지역 내에 있는 인간의 집단을 지칭하는 것도 있다. 이 정의는 시간과 지역을 한정하고, 이 한정된 지역 내에 사람의 총수를 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예를 들어 “2021년 6월 1일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는 약 5,467만 명이다.”에서의 인구는 바로 이 정의에 따른 것이다.

• 인구 밀도

인구 밀도란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 면적에 대한 사람의 수를 가리킨다. 지역적 소밀(疏密)의 정도를 파악하려면 단위 면적에 대한 인구수를 계산한 후, 인구 밀도에 따라 지도로 나타내 인구 분포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 이희연, 『인구학』

우리나라 인구 분포의 특징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는 일차적으로 지형 조건과 그에 따른 경지의 분포 상태에 따라 나타난다. 대체적으로 의주(평안북도)와 영덕(경상북도)을 잇는 선을 중심으로 남서부의 저평한 평야 지대와 해안 지대에 인구가 밀집 분포하고, 산지가 많은 북동부에는 인구가 희소하게 분포한다.

1960~1990년의 30년간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전국에서 차지하는 인구 분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시·도들, 즉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7개 광역시, 경기도와 제주도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 비록 인구 분포 비율은 줄었지만, 인구의 절대 수가 증가한 지역으로 충청북도와 경상남도가 이에 해당한다. 셋째, 인구의 절대 수가 감소한 지역으로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가 이에 해당한다. - 조혜중, 『새 인구론』

지형

지형은 지구 표면의 생김새를 의미한다. 지형의 형성에는 암석의 구성과 성질, 지질 구조, 지각 변동, 화산 활동, 기후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 유수, 빙하, 파랑, 바람 등

각종 기구는 에너지 또는 힘을 가지고 다양한 지형을 만들어 나간다. 기구에 의한 지형의 형성 작용을 외적 작용이라고 한다. 각종 기구는 침식 및 퇴적 작용을 통해 지표면을 하나의 공통적인 수준 또는 높이로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한다.

지형은 지각 변동이나 화산 활동에 의해서도 형성된다. 지각 변동이나 화산 활동은 지구 내부의 열 순환과 관련해 발생하며, 이에 의한 지형의 형성 작용을 내적 작용이라고 한다.

각종 생물도 지형의 형성에 참여하는데, 최근 들어 인간은 과학 기술의 발달로 적극적으로 급속하게 지표를 변형시키고 있다. 따라서 인간과 각종 생물의 작용도 별도로 분류할 수 있다.

-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사전

다양한 지형의 종류

지형이란 땅이 생긴 모양으로, 지구 표면의 특징적인 형태를 말한다. 지구상에는 다양한 지형이 있는데, 대표적인 지형의 종류에는 산지, 평야, 해안 등이 있다.

산지는 높이 솟아오른 땅으로, 땅이 압력을 받아 솟구쳐 오르며 만들어지기도 하고 화산 폭발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에는 산이 지역을 구분하는 경계 역할을 하였다. 또한 산은 지세와 위치에 따라 산성을 건설하여 요새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산은 각종 임산 자원과 광물 자원뿐만 아니라 빼어난 자연 경관을 이용한 관광 자원을 제공하고 있고, 동식물의 서식지로서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평야는 넓고 평평한 땅으로, 해발 고도가 낮은 땅이다. 하천은 침식물을 하류로 운반·퇴적하여 평야를 만들고, 결국에는 바다로 운반·퇴적함으로써 지표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하천이 운반해 온 모래나 흙이 쌓여 하류에 넓고 기름진 평야가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평야가 농사짓기에 유리하여 사람들은 평야 지역에 많이 모여 산다.

해안은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으로, 흔히 바닷가라고 부르기도 한다. 해안에는 대륙에서 바다 쪽으로 좁다랗게 돌출한 육지인 ‘반도’, 바다가 육지 쪽으로 파고들어 온 ‘만’, 밀물 때는 물에 잠기고 썰물 때는 물 밖으로 드러나는 모래 점토질의 평탄한 땅인 ‘갯벌’, 모래와 자갈 등이 쌓인 ‘해빈’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람들은 바다에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해안가에 모여 살았고, 해안은 어업, 교통, 관광의 중심지가 되기도 하였다. 산업화 이후에는 원료의 수입과 제품의 수출에 유리한 항구에 공업 지대가 형성되었다.

사막은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고 연평균 강수량이 250mm 이하인 곳에 나타나는 지형으로, 건조 기후 지역에서 발달한다. 물과 바람은 거대한 암석을 잘게 부수어 자갈로 만들고, 이를 모래로 만들어 다양한 사막 지형을 형성한다. 사막은 남·북회귀선 부근에 있는 아열대 고압대로 인해 연중 하강 기류가 형성되어 발달하기도 하고, 바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수분 공급이 적은 중위도 대륙 내부에서 발달하기도 한다.

- 김금주 외, 『초등 사회 개념 사전』 / 전국 지리 교사 연합회,
『살아 있는 지리 교과서 1』

☞ 기후와 날씨

사전적으로 기후는 일정한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대기 현상의 평균적인 상태로, 날씨가 시시각각 변화하는 순간적인 대기 현상이라면 기후는 장기간의 대기 현상을 종합한 것이라고 정의한다.

기후의 어원을 살펴보면 서양에서는 지후(地候), 동양에서는 24절기 72후의 시후(時候)라는 뜻이 강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기후라는 말의 뜻에는 양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기후는 지구상의 특정한 장소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가장 뚜렷한 대기 상태의 종합이라고 할 수 있다.

기후와 대비되는 단어가 날씨이다. 날씨는 길지 않은 시간대의 종합적인 기상 상태를 말한다. 기상과 다른 점은 날씨가 생활 조건에 더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날씨는 기압, 기온, 습도, 바람, 구름의 양과 형태, 강수량, 일조, 시정(대기의 혼탁한 정도)의 기상 요소를 종합한 대기의 상태이다. 쉽게 말해 날씨가 매일매일의 기상 변화라면 기후는 장기간에 걸친 날씨 변화의 종합이라고 할 수 있다.

기후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날씨가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나 날씨의 물리적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비가 내리면 우산을 쓰고 더우면 시원한 옷을 입는 것은 날씨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다.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사람들은 같은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기후에 대한 반응은 지역마다 다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오랜 경험으로 기후 환경에 적절히 적응하면서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눈이 많이 내리는 곳에서는 지붕의 경사가 급하고, 바람이 강한 지역에서는 바람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의 주거를 만든다. 이처럼 기후라는 용어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개념이 반영되어 있다.

-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사전

☞ 우리나라의 기후

우리나라의 기후는 사계절이 뚜렷하다고 강조된다.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까닭은 여름이 매우 덥고 겨울이 매우 추워서 봄과 가을이 부각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고 한서의 차가 큰 기후를 대륙성 기후라고 하고, 대륙 동안에 나타나는 대륙성 기후를 동안 기후라고 한다.

• 연평균 기온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은 약 12℃이다. 하지만 계절별, 지역별 편차가 큰 편이다. 여름철 평균 기온은 약 24℃ 정도, 겨울철 평균 기온은 약 1℃ 정도로 계절별 차이가 약 23℃ 정도 난다.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기 때문에 남북 간의 기온 차이가 크다. 남쪽 지방은 기온이 높고 북쪽 지방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또 겨울철에는 동서 간의 기온 차이가 크다. 같은 위도상에 있는 동해안과 서해안의 1월 평균 기온을 비교해 보면 동해안이 더 높다. 태백산맥이 북서 계절풍을 막아 주는 한편 때때로 편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 연평균 강수량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약 1,300mm 정도로, 매달 고르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계절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난다. 계절별로는 장마와 태풍으로 인하여 연 강수량의 60% 이상이 여름철에 집중된다. 겨울철에는 강수량이 연 강수량의 10% 이하일 정도로 적은 편이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 등 남쪽 지방에 비가 많이 내리고, 북쪽 지방으로 갈수록 비교적 비가 적게 내린다.

• 바람

우리나라는 계절마다 바람이 부는 방향이 다른데, 이러한 바람을 ‘계절풍’이라고 한다. 여름에는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덥고 다습한 남동·남서 계절풍이 약간 우세하고, 겨울에는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차고 건조한 북서 계절풍이 우세하다.

또 우리나라는 편서풍대에 자리한다. 그래서 중국 대륙에서 형성되는 이동성 고기압과 온대성 저기압이 자주 다가오며, 날씨의 변화도 대개 서쪽에서 일어나 동쪽으로 옮겨간다.

- 권혁재, 『한국 지리』 / 이승호, 『기후학』

☞ 우리나라의 기온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우리나라는 지역별로 기온 차이가 크다. 중강진의 연평균 기온은 약 0℃이지만 서귀포의 연평균 기온은 약 16℃에 이른다. 이와 같이 남북 간의 기온이 다른 것뿐만 아니라 비슷한 위도상에서도 동서 간의 기온 차이가 크다. 이렇게 지역별로 기온 차이가 큰 것은 산지와 해양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비슷

한 위도상에서 기온 차이는 산지의 영향이 매우 크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 분포도를 보면 백두 대간의 영향을 크게 받아 등온선이 백두 대간을 따라 남쪽으로 치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는 점도 우리나라의 기온 분포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동해와 황해는 규모의 차이가 커서 기온 분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황해는 바다 전체가 거의 대륙붕일 정도로 수심이 얕고 계절에 따라 수온 변화가 뚜렷하다. 동해는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이 약 3,762m에 이르며 연중 수온 변화가 거의 없다. 이러한 수온의 차이는 주변의 기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온의 동서 차이에도 산지와 바다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 강원도의 동해안은 태백산맥이 겨울철 차가운 북서 계절풍을 막아 주기 때문에 비슷한 위도상의 서해안보다 기온이 높다. 또한 동해의 겨울철 수온이 황해보다 높은 것도 동해안의 기온이 높은 요인이 된다. 이 두 가지의 영향으로 동해안의 강릉은 서해안의 인천이나 강화보다 1월 평균 기온이 3℃가량 높다. 가장 추운 달 1월에 평균 기온 3℃의 차이는 적지 않은 값이다. 그 차이로 땅이 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름철에는 두 지역의 기온이 거의 비슷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남북 간의 기온 차이도 크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긴 반도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최북단(함경북도 온성군 유원진)과 최남단(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간에는 위도상으로 10° 가까이 차이가 나며, 두 지점 간의 거리는 직선으로도 1,000km가 넘는다. 또 북쪽은 유라시아 대륙에 연결되어 있고, 남쪽은 광대한 태평양에 면하고 있다는 것도 남북 간의 기온 차이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여름보다 겨울에 기온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난다. 8월에는 기온이 가장 낮은 삼지연과 가장 높은 서귀포의 기온 차이가 10.7℃에 불과하지만, 1월에는 그 차이가 무려 25℃에 가깝다. 이러한 점이 연평균 기온 분포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남한의 가장 북쪽 지방인 철원과 남해안을 비교해 보면, 여름철에는 두 지역의 경관이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겨울철이 되면 철원 평야에서는 녹색을 전혀 볼 수 없지만 남해안이나 제주도에서는 겨울에도 온 들판이 초록빛이고, 대부분의 밭에서 겨울 작물이 재배된다. - 이승호, 『한국의 기후·문화 산책』

☞ 강수와 연 강수량의 분포

• 강수

강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액체와 동결 상태의 모든 물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비, 눈, 우박, 이슬 등이 포함된다. 강수량

은 비와 눈 등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않고 그 자리에 고였을 때의 깊이를 말한다. 강수량은 내린 비의 양이며, 강설량은 내린 눈의 깊이를 측정한 것이다.

강수량이나 강우량 등은 측정 시간이나 기간에 대한 값으로 나타낸다. 예를 들면, 1시간 강수량, 일 강수량, 월 강수량, 연 강수량과 같이 사용하며, 기온과 마찬가지로 장기간의 평균값(30년 평균)을 사용한다.

• 연 강수량 분포

우리나라의 연 강수량 분포를 보면 제주도와 남해안 일대, 대관령 지역은 강수량이 1,400mm 이상이며, 특히 서귀포와 성산포에서는 1,800mm 이상, 거제와 남해, 대관령에서는 1,700mm 이상의 강수량이 나타난다. 그 밖에 대전과 서울 부근에서 1,300mm 이상의 강수량이, 청천강 중·하류 지역에서는 1,100mm 이상의 강수량이 나타난다.

제주도와 남해안의 연 강수량이 많은 것은 여름철에 남서 기류로 유입되는 수증기가 많기 때문이다. 이처럼 여름철 남서 기류에 의해 공급되는 수증기가 지형 조건과 만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으로는 한강 중·하류 지역과 대관령 부근, 청천강 중·하류 지역, 금강 중류 지역, 섬진강 유역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연 강수량이 가장 적은 곳은 관북 지방인데, 백두산 부근을 제외하면 연 강수량이 800mm 미만이다. 다음으로 연 강수량이 적은 곳은 평양에서 용연에 이르는 지역이다. 남한에서는 경상북도의 내륙 지방이 연 강수량 1,100mm 미만으로 가장 적다. - 김종욱 외, 『한국의 자연 지리』

☞ 기후 통계의 활용 분야

기상청 기상 자료 개방 포털에는 우리나라의 100년 이상의 기후 통계가 수록되어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를 다음과 같은 곳에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

- 날씨가 상품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 인체에 날씨가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때
- 날씨에 따른 작물 성장 상태를 파악하고 싶을 때
- 작물의 파종·수확 시기를 준비해야 할 때
- 에너지 사업을 계획할 때
- 건설 입지를 선정할 때

날씨가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며, 날씨에 대한 정보와 수요 예측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음을 설명하여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자극할 수 있다. - 기상청 기상 자료 개방 포털